

자동차 정비소 근로자에서 발생한 특발성 무형성빈혈

성별	남성	나이	만 38세	직종	자동차 정비소 근로자	직업관련성	낮음
----	----	----	-------	----	-------------	-------	----

1 개요

근로자 ○○○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여러 자동차 정비소에서 도장업무를 총 5년 4개월 정도 수행하였다. 2018년 건강검진까지는 정상이었으나 2020년 5월 19일 시행한 건강검진에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8.2g/dL로 낮다는 이상 소견이 있었다. 2020년 6월 30일 A대학병원 내원해 혈액검사 및 골수 검사를 통하여 특발성 무형성 빈혈로 확진되었다. 이에 근로자는 약 5년 4개월간 수행한 도장업무에서 다양한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작업 중 유해인자 노출과 신청 상병과의 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2 작업환경

2013년부터 2020년까지 10곳 이상의 자동차 정비 업체에서 근무 및 이직을 반복하며 약 5년 4개월 동안 자동차 차체 도장업무를 수행하였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는 하도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고 이후 2019년도에는 1일 근무 시간 중 하도 작업은 6시간, 상도 작업은 2시간씩 수행하였고 2020년부터는 상도 작업만 수행하였다고 한다. 하도 작업은 퍼티 작업과 샌딩 작업을 하고 난 이후, 시너가 일부 포함된 서페이서를 뿌리며 도장작업을 시행하였다고 한다. 상도 작업의 경우, 집진 부스인 분사 도장에서 시행하였고 시너가 포함된 페인트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하루 평균 4시간 정도 도장 부스에서 분사 도장을 시행하였다고 한다. 근무 형태는 고정 주간 근무로 주 5일 출근이고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였으며 도장부 소속으로 도장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판금, 정비, 검사 작업도 수행하였다고 한다.

3 해부학적 분류

- 기타 질환

4 유해인자

- 화학적 요인

5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2020년 5월 19일 종합병원에서 시행한 특수건강진단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0년 6월 30일 A대학병원으로 내원하여 재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범혈구감소증으로 확인되었고 2020년 7월 12-13일 혈액검사 및 골수검사를 통하여 특발성 무형성빈혈로 확진되었다. 이후 수혈 및 적혈구 생성 인자 투여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 중이다. 근로자는 기저 질환 없으며, 흡연과 음주 모두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조혈기계 악성질환 및 기타 신청 상병과 관련한 특이 질병에 대한 과거력과 가족력은 없었으며 전리방사선의 직업적 노출 이력도 확인되지 않았다.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 ○○○(남, 1982년생)은 만 38세가 되던 2020년 혈액검사 및 골수검사 상 특발성 무형성빈혈로 확진되었다. 근로자는 2013년 1월 □사업소에 입사하여 2020년 7월까지 10곳 이상의 자동차 정비 업체에서 근무 및 이직을 반복하며 약 5년 4개월 동안 자동차 차체 도장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직업환경요인으로는 벤젠, 전리방사선이 충분한 문헌적 근거가 있다. 근로자는 약 5년 4개월간 자동차 정비업 샌딩 및 도장 공정을 수행하며 톨루엔, 크실렌 등에 포함된 벤젠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누적노출량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아, 벤젠 노출로 무형성 빈혈 발생과의 관계에 대한 증거는 부족하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끝.